

환경부 장관상

대성MDI

최고의 품질 석회석... 산업발전 기여



생산과정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치 아래로 유지



대성MDI 이신형 대표이사.



대성MDI 라임센터 전경.

대성MDI가 제5회 대한민국 에너지 효율·친환경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성MDI는 1960년대부터 자원개발 전문회사로 설립 후 품질 좋은 석회석과 백운석을 공급해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다. 현재 동해광산을 비롯해 제천, 단양, 석교, 옥동, 라임센터 등 6개 사업소와 삼척주유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고 품질의 석회석을 보유한 DFC와 강원머티리얼을 인수해 제철과 제강은 물론 석회공업, 환경공업, 유리

공업과 임상고토비료, 경소백운석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적극 진출하고 있다.

특히 석회석 생산과정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영향 평가는 핵심사항이다. 대성MDI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파악과 미세먼지 저감 노력 등에 주력하고 있다.

석회석 생산과정에서 질소산화물(N

Ox) 배출허용기준치인 80ppm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성MDI는 석회석을 연간 300만톤 이상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제품은 제철, 제강용, 환경개선용 석회석이다. 대성MDI는 지난 27년 동안 언더그라운드 채광의 현대화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원석운반시스템 마련을 위해 운반 전용갱도 개설, 신규채광장 개설, 환경

오염 방지시설 확충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 산업발전의 토양을 다지고 자원개발기술의 표준을 만들어온 대성MDI는 친환경 첨단시설과 공법을 통해 생석회, 소석회 등 환경친화적 제품개발에 주력, 친환경 생태기업을 지향하고 있다.

여영래 기자 yryeo@ekn.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설명회.

기상기후·에너지 기술 기업발굴·지원에 앞장



류찬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최근 3년간 원천기술 개발로 총 96개·655억4600원 상당 과제를 학계·기업에 지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제5회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은 기상과 지진, 기후분야 기초원천기술 개발과 타분야 융합을 통한 기상서비스 기반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연구 전 주기를 지원하고 있다.

또 신기술지원분야로는 기후변화 원인·결과, 영향정보에 대한 수집·분석기술 개발, 장기예보와 미래기후변화 예측 기술개발, 기후과학기술, 기상과 타분야 융합기술 개발, 4차 산업 기술 기반 도로위험 기상정보 생산 기술 개발 융합서비스 등이 있다.

기술원은 최근 3년 동안 기상기후 서비스 원천기술 개발로 총 96개, 655

억4600만원 상당의 과제를 학계와 기업에 지원했다.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452건, 비(非)SCI 264건, 특허등록 71건, 특허출원 153건, 기술이전 3건, 사업화 62건, 현업화 51건, SW 424건 등 총 1480건의 정량적 연구성과를 냈다.

이중 기후과학기술분야 1건과 지진분야 2건이 과기정통부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

기술원은 경쟁력 있는 기상기후와 에너지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과 창업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융복합,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기상, 지진, 기후분야 중장기적 연구개발(R&D) 미래전략을 마련하고 국가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권세진 기자 cj@ekn.kr

환경부 장관상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종이빨대에 개인컵 활용으로 '더푸른 스타벅스'



개인컵 이용고객에 할인혜택 20주년 2만그루나무심기 후원



송호섭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



스타벅스 '마이 텀블러 캠페인' 개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제5회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지난해 7월 일회용품 줄이기 대책을 포함한 전사적 친환경 캠페인 실행의 일환으로 '그리너(Geener) 스타벅스코리아'를 발표했다. 더푸른 스타벅스를 가꾸어 나겠다는 의미이다. 제품, 사람, 매장의 3가지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종이빨대를 개발해 전국매장에 확대시켜, 연간 플라스틱 빨대 1억8000만개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지구 한 바퀴(약 4만km)에 해당하는 길이이고 무게로는 126t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또한 일회용 컵을 줄이고자 '에코보너스 스타' 제도를 도입해 개인컵을 이용한 고객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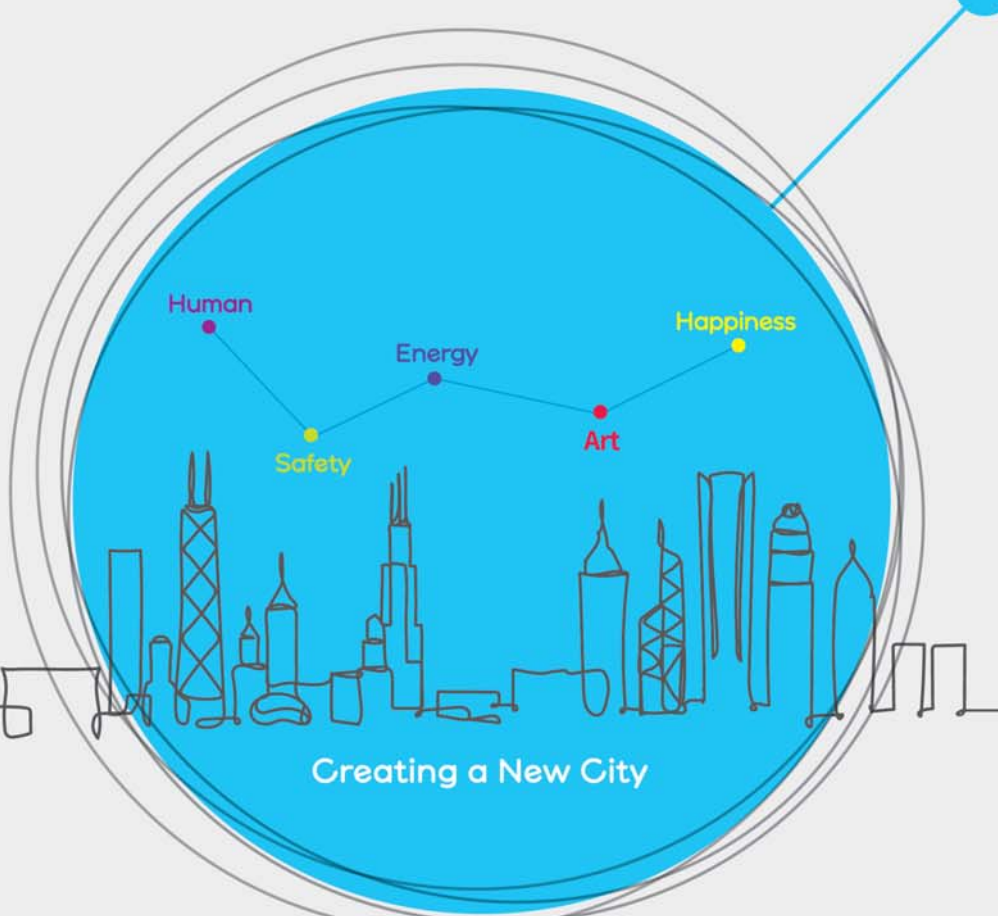
아울러 스타벅스는 전국 매장에서 수

거되는 커피찌꺼기를 이용해 자원순환에 앞장서고 있다. 커피는 한잔을 만들 때 마다 14g의 원두가 한번 쓰고 버려진다.

스타벅스는 버려진 원두를 2015년부터 경기도와 '우리농수산물 소비촉진과 자원재활용을 위한 상생 협력'을 맺고 커피박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비료

공급에 능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 친환경퇴비 1만 포대 기부를 시작으로 지난해 4만6000 포대가 늘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억원이 넘는다. 올해 개점 20주년을 맞아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전국 20개 숲과 공원에 2만그루 나무심기 후원도 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is@ekn.kr



CNCITY에너지가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

에너지의 연결로 편리와 쾌적을 제공해 온 CNCITY에너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회 곳곳,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공익활동, 우리가 응원해야 할 청년 문화와의 연결을 통해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